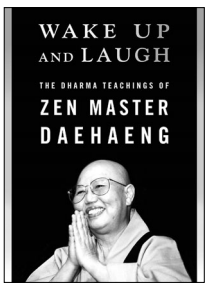


# 대행 선사 법문 <Wake Up and Laugh> 출간



Wake Up and Laugh  
깨어나 웃어라  
대행 스님 지음  
위즈덤 펍  
16.95 달러



美유명불교서적업체 위즈덤 출판사 통해 나와

<No River to Cross> 베트남에서 출판계약

한마음선원 창건주인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법문 모음집인 <Wake Up and Laugh(깨어나 웃어라!)>가 미국 유명 불교서적 전문 출판사인 위즈덤 출판사(Wisdom Publications)를 통해 출간됐다. 한마음선원 부설기관인 한마음국제문화원(이하 문화원)은 “독일이 버전으로 출간된 <Wake Up and Laugh>가 지난 3월 영어 버전으로 위즈덤 출판사를 통해 미국 현지에서 출간됐다”고 밝혔다. 이 책에는 △죽어야 나를 보리라 △말겨 놓고 지켜보라 △합이 없이 하는 도리 △마음은 보이지 않는 행복의 창고 △일체를 용광로에 넣어라 등 대행 선사의 주옥같은 법문이 실려 있다. 한마음국제문화원은 이미 2007년 대행 선사 가르침의 요체를 담은 책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의 영문본인 <No River to Cross>를 위즈덤 출판사를 통해 출간한 바 있다. 문화원은 “위즈덤 출판사는 지속적인

어디 있으랴)의 영문본인 <No River to Cross>를 위즈덤 출판사를 통해 출간한 바 있다. 문화원은 “위즈덤 출판사는 지속적인

로 전세계 불교계 훌륭한 스승들의 가르침만을 엄선해 출판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폭넓은 배급망을 갖고 있어 외국의 여러 불교 서점들이 위즈덤 출판사의 출판도서목록에서 판매 도서를 선택하고 있다”며 “위즈덤 출판사에서 출판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더 많은 해외 독자들이 스님의 가르침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이번 <Wake Up and Laugh> 출간을 계기로 대행 선사의 가르침과 한국불교가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원은 베트남의 푸옹남 출판사(Phuonnam Books)와 <No River to Cross>의 베트남어본 출판 계약을 맺었다. 푸옹남 출판사는 베트남 호치민시를 근거로 베트남 전역에 걸쳐 배급망을 가지고 있는 대형 출판사다. 문화원측은 “1천 여 년전 불교가 베트남에 전파된 이래 오랜 세월 불교를 숭상해왔고, 현재도 전 인구의 80%가 불교를 믿고 있는 베트남 불교계에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너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 “자비와 사랑은 인종과 국가 그리고 계층도 뛰어 넘는다”

혼자만 깨우치면 뭘 하겠는가  
진오 스님 지음 | 리더스북 펍 | 1만5천원



달리기는 스님이 있다. 달리기를 직업으로 삼은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다. 그런 데도 저토록 지난한 고통 속에서 자기와 의 싸움을 반복해가며 고행에 다름 아닌 달리기를 한다. 그는 구미 대문사 주지 진오 스님이다. 그가 소외된 이들을 돕기 위해 마라톤을 시작한 것은 2002년. 다음 해에는 철인3종 경기에도 도전했다. 그러다 보니 별난 스님으로 TV에 소개되기도 하면서 달리는 스님으로 알려졌고, ‘철인 스님’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왜 달리는지를 자주 묻는다. 승복을 입고 깊은 산중에 있어야 할 스님이 속세로 나와 달리기를 하니 궁금한 것이다. 그는 달리면서 1킬로미터당 100원 또는 200원의 후원금을 받고, 이 후원금이 모여 이주민노동자들, 이주민여성들, 통일(탈북)아이들의 쉼터와 먹거리를 만드는 데 쓰인다. 그러나 그가 단지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서만 달리는 것은 아니다. 토안은 퇴근 후 생필품을 사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불법 유통하는 자가용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한 토안은 가해자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조건으로 700만 원에 합의했고, 그 돈은 모두 베트남 가족들에게 보내졌다. 당시 토안은 무일푼이나 다름없었다고 한다. 진오 스님은 ‘만일 한국사람이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다면 그것도 뇌를 잘라내는 수술까지 받은 상태라면 그 정도 돈으로 형사합의를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문제제기를 한다. 토안뿐 아니라 코리안 드림을 품고 우리나라에 온 많은 이주민 노동자와 이주민여성들, 통일아이들이 각종 병대와 무관심 속에서 불이익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이들과의 인연이 그에게는 모두 달려야만 하는 이유이자 화두가 된 것이다. 부처님은 달리라고 설명하신 적이 없지만 ‘자비’를 중요한 가르침으로 남기셨고, 극한의 고통을 반복하며 달리기를 하는 것이 그가 선택한 수행의 방법이다. 또한 산중에 있지 않고 산 밑으로 내려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는 것도 부처님 제자로서의 실천이라 믿기 때문에 그는 달리기를 멈출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제일 잘하는 일이기도 하다. 진오 스님은 고등학교 시절, 출가를 결

심하고 동국대 불교대학에 진학해 부처님 말씀을 배웠다. 출가자로 34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다른 자신을 만났고, 수없이 변화하는 세상과 만났다. 그가 보았던 삶의 현장에서는 코리안 드림을 품고 낯선 남의 나라로 건너와 편견과 오해, 냉대 속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목숨을 걸고 탈출한 뒤 남한에 적응을 하지 못해 신음하는 통일아이들이 있었으며, 가정폭력과 이혼, 사별로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 내몰린 다문화여성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기도가 아닌 보다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돕기로 결심한다. 그가 대학원에 진학해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복지 센터를 세운 것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 이 책의 제목 ‘혼자만 깨우치면 뭘 하겠는가’로 짐작할 수 있듯이 산속에서 염불이나 외워서는 중생을 구제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종교 철학이다. 어떤 스님은 산사에서 공부와 명상을 통해 더 큰 가르침을 얻기도 하고 어떤 스님은 오랜 시간 묵언 수행하며 정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가 택한 길은 세속에서 사람들과 섞여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실천하는 수행이다. 그는 베트남으로 건너가 ‘해우소 108개

12년 8천킬로, 소외이웃 위한 달리기 타인의 고통 외면에선 안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황거(皇居) 공원에서 출발,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인 미야기현 이시노마키까지 왕복 1,000킬로미터를 완주했다. 그리고 2013년 한독수교 130주년, 그리고 파독광부 50주년을 맞아 독일의 옛 수도 본에서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까지 700킬로미터를 달렸다. 그가 부처의 자비를 전하는 데 장소와 인종은 무의미하다. 이 책에는 지난 12년간 끊임없이 달려온 그의 삶과 그를 달리게 했던 숱한 이들과의 만남, 그리고 달리기를 함으로써 그가 만들어온 남다른 수행의 과정이 담겨 있다. 부처나 예수가 그리고 진리가 반드시 절이나 교회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진정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변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성인들이 설파한 말씀을 실천하는 일임을 그는 애써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실천을 통해 몸소 보여준다. 그가 자신과 이웃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쓴 이 책을 읽다 보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비’와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부처의 가르침이 반드시 종교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 종교 넘어 인문학된 불교의 진명목 망라



불교의 모든 것  
박철환 지음  
행성: 8남새 펍  
2만2천원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 거기까지이다. 금강경, 법구경, 능엄경 등 이름조차 입에 붙지 않는 경전들, 단어 하나하나가 난해해 의미를 알 수 없는 교리들, 밖에서 바라보면 마음은 편하지만 무엇을 하는 곳인지 짐작 가지 않는 사찰의 건물과 다양한 불상들……. 마음의 안식과 깨달음의 길에 다가가기는 커녕 길을 잃고 포기 하는 경우가 많다. 저자는 이런 이들에게 “삶의 불안정과 아픔을 해소해보려는 바람으로 불교에 관심 가져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리 간단치 않다. 왜냐하면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이드북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은 마음의 소음에 부대끼는 이들을 불교의 숲속으로 데려가 나무 하나하나를 쉽게 설명하고, 그 숲속에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다”라고 이 책을 쓴 이유를 말한다. 이 책은 쉽게 다가가기 힘들었던 불교의 경전, 교리뿐 아니라 문화, 인물, 역사까지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다. 또한 풍부한 사진자료와 지도, 제보도 등을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해주도록 배려했다. 불교만큼 우리 민족의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준 종교도 없을 것이다. 전국 곳곳 산과 마을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단어 중에 불교서 유래된 말이 생각보다 무척 많다. 언어뿐만 아니라, 민속 의식, 민속 신앙도 불교서 유래된 것이 많다. 고구려가 처음 받아들인 불교는 그저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문화복합체였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종교를 뛰어넘어 우리 삶을 공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불교 불교의 용어와 교리 쉽게 설명 풍부한 사진 자료 지도 등 수록 불교상식 일상언어로 해설

제, 49재 등 다양한 불교 의식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준다. 그리고 신타르타의 가족관계부터 붓다의 10대제자, 여래10호, 6사외도 등의 인물들은 물론 여러 종파와 금강경의 4구계, 윤회, 불립문자 등의 뜻과 법당에서 지켜야 할 예절, 승려들의 직책, 발우공양 방법, 염주와 폐불의 용도, 적멸보궁의 뜻, 108번뇌에서 108의 뜻, 행화의 의미 등의 불교 상식을 알기 쉽게 일상의 언어로 풀어놓았다. 이처럼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불교에 관한 거의 모든 것들을 쉽고 깊게 이야기해 준다. 불교에 의지하려는 사람들은 열반이라는, 고요해진 마음의 평지를 원한다. 모든 번뇌를 벗어 버린 해탈한 마음 상태가 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불교를 알면 그곳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해 불교 공부를 시작해보려 하지만 2,500년간 이어온 불교의 가르침을 단시일 내에 익히기는 쉽지 않다. 이에 저자는 “얕”이 곧 “땀”이 될 수 없듯이, 불교에 대해 많이 안다고 해서 열반에 가까이 가는 건 결코 아니다. 따라서 불교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얕’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여차피 말이나 문자는 방편일 수밖에 없으니까”라고 말하며 이 책에 요약된 많은 법문 중 자신에게 알맞은 가르침을 찾아내 그것을 반복해서 되새기고, 여러 수행 가운데 적합한 하나를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닦아나가면 마음의 소음이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 변명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2) 입종 후 발급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총회세존 3천 4십 1번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조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